

<2018년 8월 3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 또 하루의 새벽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선생은 늘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일거리’가 많습니다.
불철주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1. <새벽 기도>란, ‘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일’ 이요, ‘자기를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일’ 이다. 또한 ‘자기를 더 이상적인 존재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 이다.
2. 자기를 이상적인 존재자로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야 하니 굉장히 어렵다. 마치 ‘은메달 자’가 ‘금메달을 따는 것’과 같이 힘들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부활되기 어렵다.” 한다.
3.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힘들다는 것이다.
4. <부활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니, <병든 자>가 낫는 것과 같이 힘들고,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전도해서 시대를 깨우쳐 주고 교회를 다니게 만들어 주는 것과 같이 힘들다.
5. 또한 <구시대>가 ‘새 시대’로 살아나는 것과 같이 힘들다. <구시대>는 죽어있다. 고로 <구시대>가 ‘새 시대’로 전환하고 살아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라도, ‘본인’ 이 해야 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새 시대’로 와서 행해야 부활된다.

6. 부활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7. 지금은 ‘부활기’로서, ‘부활 주관권’에 살고 있다.

8. 부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부활하는 ‘부활 역사’다. 계속 살아나는 역사의 기간이다.

9. 지금 <부활 기간>을 보내고 있어도, 아직 부활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다. 이들은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다.

10. <부활>되려면, ‘실제 행해야’ 된다.

11. <부활>되려면,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한 것과 같이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영혼이 죄 가운데 죽은 것이다. 영혼 뿐 아니라, <그 육>도 죽은 것으로 본다. 의학적으로 볼 때 육신은 살아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죽은 것으로 본다. 죄를 안 짓고 회개하여 ‘의인’이 돼야 부활된 것이다.

12. <월명동>을 다시 개발해서 부활되었듯, <부활>이란 ‘개발된 것’이다.

13. <돌감나무>가 ‘참감나무’가 되면, 부활된 것이다. <본인>이 돌감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여서 살려냈으면, ‘참감나무’로 부활된 것이다. <참감나무>로 부활됐어도, 계속 퇴비하고 가꿔야 ‘열매를 여는 부활’이 된다.
14. <한 가지>만 부활됐다고 다른 것까지 다 부활된 것이 아니다. 한 만큼만 부활된다. 그러니 완전히 살아나고 부활되려면 정말 힘들다는 것이다.
15. <말>만 한다고 부활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씩 ‘실천’해서 그것이 되면, 부활된 것이다.
16. 실천하다가 안 하면, 또 죽는다. <할 때>만 살아있는 것이다.
17. <실천함으로 부활을 이루고, 계속 행하는 자>는 얻을 것도 얻고, 취할 것도 취하며 뛰고 달린다. 그러나 <죽은 자>는 ‘자기 기회’가 자기 앞에 지나가고 있어도 모른다. <정신>과 <생각>이 죽어서다.
18. <실제 실천하고 행한 것>만 ‘부활’된다.
19. 완전히 부활되어라.
20. <자위행위를 하는 것>도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자위 행위>를 안 해야 된다. 그러면 ‘부활’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면, 얻을 것을 얻게 된다.

21.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는 ‘죽은 자’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복’이 지나가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
22. 알아야 된다.
23. 모두 정말 부활돼야 된다. 부활되지 않으면 안 된다.
24. <생각>으로만 부활되지 말고, 실제 ‘실천’ 함으로 부활되어라.
25. <실천한 자>는 ‘살아난 것’이다.
26. <행한 것>만 부활된다. 안 하면, 부활되지 않는다.